

무주군, 민선 8기 결실 다지기 나서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자연특별시 무주 성장, 군민 행복 증진’ 총력

무주군이 ‘자연특별시 무주 성장,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민선 8기 결실 다지기에 나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K-관광수도를 지향하는 자연특별시 무주가 완성할 민선 8기는 무주다움으로 지역에 활력을 충전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광 생활인구 증대,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도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교통망 확충 개선, △선제적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인구 대부분이 관광 인구인 점에 초점을 맞춘 무주군은 ‘관광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을 비롯한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덕유산 산림욕장 및 둘레길 조성,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무주생태환경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마무리와 운영에 나선다.

무주군은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



황인홍 무주군수

보, 제2국기원 건립 도전,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에도 주력한다.

정주 인구 확보 기반이 될 ‘귀농귀촌 활성화’는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 임시거주시설 조성, 귀농소득 및 귀촌 생활정책 지원 등으로 주도하고 청년 대상 다양한 일자리, 주거, 보육 정책은 청년인구 유입·정착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복지 실현과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 강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 보편적

물 복지 실현에 힘쓰다. 또한 군립요양병원 안정적 정착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복지 통합 돌봄 실행 등 군민 생활 기본권 보장에 주력한다.

군은 교통망 확충과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의 체계적 운영, 다기능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등 자연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 소중한 산림자원과 군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황인홍 군수는 민선 8기 비전 완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만족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행정에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지역 성장과 군민 행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생활 인구 증대,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무주가 가진 자연·문화 자원 확충과 콘텐츠 육성, 관광 및 정주 환경을 연계시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3년, 행복 장수 만들기 최선”

최훈식 장수군수, 주요 성과·향후 군정 방향 밝혀

최훈식 장수군수가 1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지난 3년간 ‘장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를 목표로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씬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그 길 끝에 지난 3년간 장수군은 끊임없는 행정혁신과 도전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장수군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장수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최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등 스마트 농업을 도입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 농업 중심지’이자 ‘살기좋은 부자농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열려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제5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를 통해 장수군이 ‘한국의 사모



최훈식 장수군수

니’ 산악레저 관광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아이들의 천국’ 장수누리파크, 뜰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장수 만남의 광장 등 자연 속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연간 관광객 100만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최 군수는 “군은 320억 원 더 특별한 전북형 반향주택사업, 301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100억 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42억 원농촌공간 정비, 40억 원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30억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재정적 기반도 강화했다”며 “지역 전체가 풍요롭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

련됐고 ‘산간 오지’라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모두가 찾는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384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이 체결된 만큼 2029년까지 7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공간 정비,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활 SOC 시설 확충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 군수는 “이 모든 결실은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작지만 강한 장수, 살고 싶은 장수, 지속가능한 장수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난 3년의 성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고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남은 기간 탄탄한 미래를 설계해 장수군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생명·국제산악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터전’,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군,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1일 예제문화관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각오를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행사 규모와 형식은 최소화하고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저소득 재가 어르신 식사 배달, △마을 공동급식 점점 등 현장 중심의 소문 행보를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날 등교 시간을 이용해 관련 공무원들과 무주중학교 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펼쳤으며, 무주읍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어르신 6명에게 식사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공동급식 현장인 무주를 하장백마을회관에서

위생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충혼탑 참배 후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황인홍 군수와 공무원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함께 걸어온 지난 3년”에 관한 영상 시청과 기념 촬영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유성현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이응주 건설과 도로팀 주무관, 정창남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이 무주의 성장과 군민 행복을 일구고 있다”라며 “한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동반자로서 도전과 성취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기운찬 도약의 발판을 놓아보자”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취임 3주년 농촌일손돕기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1일 별도의 취임 3주년 기념행사 없이 영농현장을 찾아 부푼한 일손을 거뒀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전 군수는 기념식 대신 간부공무원 30여명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전면 노성리 고령 여성농업인의 상추밭을 찾았다.

30도가 넘는 땀방 아래서 펼쳐진 일손돕기는 부군수, 국·소장, 실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가량 밭에 검은 비닐을 씌우고, 상추 모종을 정성스럽게 옮겨 심었다.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군수는 의례적인 행사보다 민생현장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간부들의 일손돕기 동참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춘성 군수는 “매년 영농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국정기조에 발맞춰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난지형 마을 ‘대서’ 품종 시범 재배 성공

진안군은 최근 진안군 일대에서 시범 재배한 난지형(따뜻한 지역) 마을 ‘대서’ 품종이 지역 기후와 토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성공적인 재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적응 시범사업은 겨울철 고소득 작목 육성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이어진 시범 재배를 통해 대서 마을의 높은 생산성과 지역 적합성이 입증됐다.

진안군의 평균 기온은 10.6~12.9℃로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은 매우 추운 지역이다. 이에 그간 난지형 마을재배



가 어려웠지만, 최근 온난화로 기후여건이 변화하면서 난지형 마을재배에 성공했다.

진안군은 오는 가을부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농가 재배교육과 현장견학을 병행해 대서마을의 안정적인 여름을 따뜻하고, 겨울은 매우 추운 지역이다. 이에 그간 난지형 마을재배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세계 파라 태권도 훈련캠프 무주 태권도원서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WT)과 함께 2025 세계 파라 태권도 훈련캠프(이하 훈련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훈련 캠프는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 7월 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훈련 캠프에 함께하는 선수들은 K44 등급으로, 패럴림픽 모든 체급에 걸쳐 체급별 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유일하게 2개의 패럴림픽 금메달을 보유한 여자 -47kg급 레오노르 앙헬리카 에스피노사 카란사(페루), 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 -70kg급 이마마딘 칼리로프(아제르바이잔) 등 다수의 패럴림픽 메달리스트가 참가한다.

훈련 캠프에서는 태권도 기술과 겨루기 등의 신체 훈련과 정신 수련, 도핑 방지, 스포츠등급 분류 프로세스, WT 파라 태권도 발전 등의 이론 강의를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탄소중립 성과 보상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성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평가와 보상제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다수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보상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비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